

**연합뉴스[7. 18.(월) 16:50] ○광주중앙도서관,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광주중앙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8월 9~12일 그림책·코딩 융합 교육프로그램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을 운영한다. 18일 광주중앙도서관에 따르면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차시로 진행된다. 초등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발하고 사고력을 키우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 읽기 ▲메이킹 활동 ▲보드 활용 코딩 실습 ▲시나리오 구성해 코딩으로 표현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각 차시별로 먼저 '너는 괴물?', '내가 보여!', '오염물이 터졌다!', '그레타 튼베리가 외쳐요!' 그림책을 읽은 후 다양한 공작재료를 메이킹 시간을 갖는다. 이어 블록코딩과 교육용 보드를 연결해 코딩을 실습해보고 책 속 내용을 나만의 시나리오로 구성해 코딩으로 표현해 본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광주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참가 대상과 인원은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청소년 10명을 모집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주중앙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문헌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추선미 광주중앙도서관 관장은 "독서와 코딩을 융합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이 신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도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용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행복한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뉴스[7. 18.(월) 15:40] ○[교육소식]****◇광주중앙도서관 '그림책·코딩 융합 프로그램'**

광주중앙도서관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그림책·코딩 융합 교육 프로그램 '2022 이야기가 있는 코딩'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총 4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림책 읽기'를 시작으로 '메이킹 활동' '보드 활용 코딩 실습' '시나리오 구성해 코딩으로 표현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광주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류형근>